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9월 2일(주일) 제1211호



사진은 지난해 열린 추석연합집회 'Harvest 2017'.

이주민들과 함께 하는 온누리!

온누리M미션, 추석연합집회 'Harvest 2018' 개최

9월 23~25일 Acts29비전빌리지 이주민 700여 명 참석

온누리M미션이 이주민들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Harvest 2018'을 개최한다.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Acts29비전빌리지에서 'Stand up'을 주제로 막 오른다. Harvest 2018에는 베트남, 스리랑카, 네팔, 몽골, 러시아, 페르시아 등지에서 온 이주

민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Harvest 2018에서는 세 번의 예배와 간증 나눔, 문화공연, 팀워크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박종길 목사(서빙고 온누리교회), 박씨마 전도사(페르시아어예배), 한상철 선교사(미국 선교사)가 강의한다.

온누리M미션에서는 추석연합집회 Harvest 2018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봉사자와 후원물품을 모집하고 있다. 식당, 간식, 어린이사역, 사진촬영 및 영상편집, 의료, 숙소, 접수, 데코, 통역 등을 섬겨 줄 봉사자 100명이 필요하다. 또한 이주민

700여 명이 먹을 빵(식빵, 크로와상, 파니니용, 베이글)과 고기(쇠고기, 돼지고기, 훈제 닭고기), 종이접시, 국그릇 등의 물품도 필요하다.

노규석 목사(온누리M미션 본부장)는 "매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헌신과 사랑 덕분에 많은 이주민들이 추석연합집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서 "올해도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 오셔서 함께 천국잔치를 만끽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국어예배와 캄보디아어예배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석집회를 개최한다. 태국어예배는 강화도에서, 캄보디아어예배는 의정부에서 각각 추석집회를 연다.

문의 물품: 070-8671-8092

봉사자: 010-3937-3927

후원: 하나은행 573-810031-74605
(온누리교회온누리미션)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오늘, 대전 온누리교회 창립 15주년

창립감사예배 오전 11시 30분 본당

오늘(2일)은 대전 온누리교회(담당 박태영 목사) 창립 15주년 기념주일이다. 오전 11시 30분 대전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창립 15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서빙고 장로합창단이 특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대전 온누리교회는 2003년 9월 7일 창립했다. 지역사회에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배와 양육, 해외선교와 사회선교에 집중하고 있다. 성도 1천 9백여 명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하반기 주요 목회일정

9월 30일: 추수감사주일
10월 7일: 창립 33주년 기념주일,
대중교통 이용의 날

10월 24-26일: 부흥집회
11월 13-14일: 러브소나타 후쿠오카
11월 24일: 권사·안수집사 임직식

성찬용 포도즙 제조

서빙고 9월 10~11일, 양재 12일

성찬용 포도즙을 제조한다. 서빙고 온누리교회는 9월 10일과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양재 온누리교회는 9월 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교회

식당에서 성찬용 포도즙을 만든다. 서빙고는 임직 후보자(안수집사, 권사), 양재는 권사회와 임직 후보자들이 봉사할 예정이다. 봉사가 가능한 요일과 시간표

참고)을 정해서 임직자스쿨 등록 데스크에 신청하면 된다. 이 기간 동안 교회식당 운영은 하지 않는다.

문의: 서빙고 02-3215-3661
양재 02-570-7396

서빙고 *시간 선택 가능 (일 8시간/2일간 16시간 인정)	날 짜	오전팀		오후팀
	9월 10일	오전 10시~오후 12시		오후 1시~오후 7시
	9월 11일	오전 10시~오후 12시		오후 1시~오후 7시

양재 *공동체별 참가	날 짜	오전팀	점심팀	오후팀
	9월 12일	오전 9시~오후 1시 강남A, 강남B, 강남C, 도곡, 송파	오후 1시~5시 경기A, 분당A, 분당B	오후 5시~9시 서초A, 서초B, 서초C, 양재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 부부, 참 튼다. 조장석(사진작가)과 박돌선(슈퍼모델) 부부 말이다. 직업뿐만 아니라 외모도 멋지다. 박돌선 씨는 시원스럽게 생긴 이목구비가 서구적인 느낌을 주고, 조장석 작가는 백발의 빠침머리와 검정색 뿔테안경이 참 잘 어울린다. 이 부부의 신앙도 아름답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선다. 현재 NGO 더멋진세상 홍보대사이기도 하다. 유쾌하고 솔직한 그들을 만났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찰칵,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찍어 드립니다”

사랑의 가족사진 보내기 프로젝트 진행 중인 작가 조장석, 모델 박돌선



NGO 더멋진세상 홍보대사 박돌선, 조장석 부부(좌), 조장석 작가가 아프리카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다(우).



도 남편보다는 신앙이 좋다는 오만함도 있었고요. 남편의 믿음을 무시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보다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 모습을 본 아내의 심경에 변화가 생겼다.

“어느 날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왜 그동안 얘기 안했냐고 따졌더니 ‘내가 얘기해도 넌 안 믿었잖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후회도 했고요. 남편이 신앙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제가 부족하고 교만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삶의 비전과 목표가 바뀌다

부부가 우연한 기회에 이스라엘 집회에 참석했다가 조장석 작가의 삶의 비전과 목표가 바뀌었다.

“나비사무엘(Nebi Samuel, 사무엘 선지자의 무덤이 있는 곳)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무지개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 무지개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기도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사진을 찍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사진을 찍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원하는 자극적이고 세속적인 사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진을 찍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아내도 남편의 새로운 비전을 응원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평생 사진을 찍으면서 그때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었다고요.”

조장석 작가는 지금 촬영여행을 다니고 있다. 지구촌 곳곳을 누비면서 찍은 사진이 몇 만장이나 된다. 아쉬운 점도 있다.

“재정과 행정적인 상황 때문에 사진을 못 보내주고 있는데 너무 아쉽고 안타깝네요.”

솔직하고 명쾌한 이 부부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이 땅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돕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힘든 시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섬기고 구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길인 것 같아요.”

사랑의 가족사진 보내기 프로젝트
문의: face1004@hotmail.com
https://youtu.be/sqkqvgRV5Fg

조장석 작가와 모델 박돌선 씨는 지난 2015년부터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사역하고 있다. 유명인으로서 다른 NGO단체에서도 활동해왔지만 이번만큼 애정과 자부심이 느껴지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NGO 더멋진세상은 다른 NGO단체들과 조금 달라요. 굉장히 건전한 단체거든요. 많은 NGO 단체들이 후원금을 조금이라도 더 모금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NGO 더멋진세상은 사역 자체에 집중하더라고요.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결과를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지속적인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는 것도 NGO 더멋진세상만의 장점이고요.”

조장석 작가가 NGO 더멋진세상의 팬이 된 이유가 또 있다. 사진작가로서의 작품 활동을 온전히 이해해주고 동감해주기 때문이다.

“NGO 단체하면 떠오르는 사진 있잖아요? 구정물 떠먹는 아이라던가, 피골이 상접한 아이라던가... 그런 사진을 소위 ‘빈곤 포르노’라고 합니다. 저는 그게 못 마땅해요. 불쌍하고 처참한 사진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밝고 건강한 사진을 찍고 싶어요. NGO 더멋진세상은 저의 이러한 생각을 전적으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더라고요. 제가 찍은 사진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기부를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 내가 이 일하기 참 잘했다’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www.abetterworld.or.kr)에 접속해보면 조장석 작가의 말을 확인할 수 있다.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한 사진은 하나도 없다. 온통 밝게 웃고 있는 아이들 천지다. 조 작가가 바라본 사진이 바로 이것이다. 비참한 사진을 찍어 사람들에게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사진 한 장으로 한줄기 희망을 선물하는 것이 그가 ‘사랑의 가족사진 보내기 프로젝트’(One Nation One Family)를 진행하는 이유다. 가장 행복한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희망과 감동을 선물하겠다는 조 작가의 비전이 보석보다 빛났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진작가라는 호칭을 붙여도 결코 과하지 않다.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그 흔한 가족사진 한 장 갖는 것도 힘들어요. ‘엄마 사진이 한 장도 없어서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현지인의 말을 듣고 사랑의 가족사진 보내기 프로젝트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힘을 낼 수 있잖아요? 가족들이 활짝 웃는 사진, 아이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찍어서 그들에게 선물하고 싶었어요.”

아름다운 부부 그리고 신앙

이 아름다운 부부는 사는 모습도 아름다워 보였다. 도대체 이 부부는 어떻게 만났을까?

“모델학원 선생과 제자 사이였어요. 아내를 처음 보고 모델로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당시 모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매력이 있었거든요. 할리우드 유명배우 ‘산드라 불록’ 같은 느낌이었어요.”

먼저 호감을 느낀 조장석 씨가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데이트를 시작했다.

“밥 사준다고 해서 만났어요. 그렇게 밥 먹다가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죠. 자연스레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돌선 씨가 수줍게 그들의 연애사를 꺼내 놓았다. 박돌선 씨는 슈퍼모델로 화려하게 데뷔했다. 한창 활동을 하던 시기에 결혼을 결정했다. 당시 광고계약이 걸려있어 주위에 알리지도 못하고 결혼해야 했지만 망설임이 없었다. 남편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다.

“남편한테 정말 고마워요. 남편이 외조를 정말 잘 해줬거든요. 결혼했다고 제가 하는 일에 제약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모델로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안 해 본 게 없을 정도로 일했어요. 모두 남편의 배려 덕분이에요. 일하느라 자녀 계획을 놓친 게 조금 아쉽지만요.”

모델 활동을 위해 자녀 계획을 조금 미루자고 하는 아내의 제안을 남편이 묵묵히 받아줬다. 그런데 시기를 놓치고 보니 아이 갖는 게 어려워졌다. 어찌 보면 아픈인데 그 아픔조차도 솔직하고 담담하게 꺼내놓는 걸 보면 이 부부는 정말 사랑과 신뢰가 돈독해 보였다.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는 부부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신앙도 멋쟁이일거라고 기대했다. 박돌선 씨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부부는 믿음은 없지만 교회 활동은 하는 신자였어요.”

조장석 작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박돌선 씨는 모태신앙이다. 둘 다 신앙의 연수(年數)는 길지만 깊이는 얕았다. 모양만 크리스천이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어요. 보수적이고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주 안에서 강건해지십시오

에베소서 6장 10~20절

“주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 되십시오.”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안에서 주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마지막으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전체를 요약한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엡 2:5-6).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고, 그분이 승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승천했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놀라운 주제입니다. ‘2천 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에 어떻게 우리가 함께 죽는가’가 믿음의 신비입니다. 믿음이란 과거에 일어난 사건과 우리를 연합시킵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과도 연합시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나를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그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로마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연합과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 옛사람이 하나 되어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니라 부활에 초점을 맞춥니다. 죽으심은 이미 가정하고,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합니다. 부활 이후를 더욱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수 있고, 하늘의 백성으로서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미래 시제로 사용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미래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을 전부 과거 또는 완료 시제로 표현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로 간주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안에 거함으로 강건해지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한 상태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상태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세 단계 갈등과 전쟁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창 3:15).

세 단계 갈등과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어 싸우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이 싸우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여자의 후손과 뱀이 싸우는 단계입니다. 세 단계 모두 갈등과 전쟁 단계입니다.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자기편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탄은 인간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 후손이 서로 싸우게 하고, 마지막에 있을 싸움을 예언하셨습니다. 마지막 싸움은 뱀과 여인의 후손이 싸우는 단계입니다. 그 싸움의 결과도 말씀하셨습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세력과 인간이 하나 되지 못하게 끊임없이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악과 원수관계를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악한 일을 함께 한 사람들을 보면 절대로 선하게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악을 함께 범한 사람들은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끊어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탄의 후손은 없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들과 싸우는 갈등과 전쟁이 있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탄과 여자의 후손과 전쟁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많은 전쟁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것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태어날 여자의

후손을 계속 공격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의 질투심을 부추겨서 영아들을 살해하는 학살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장하자 인간이 당하는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 그분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하고만 계시지 않았습니까. 가시는 곳마다 사탄의 나라를 뒤엎고 전복시키셨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하고, 눌린 자를 풀어주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취주셨습니다. 사탄은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 가롯 유다 같은 사탄의 종 된 이들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승리했다고 자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그 머리가 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십자가 싸움의 필요성과 의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조문들이 담긴 채무 증서를 제거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로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장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14~15절).

골로새서 2장에서는 십자가의 싸움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해 줍니다. 골로새서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시각에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는 영적 전쟁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사탄과의 싸움의 끝이 십자가였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싸움이 왜 필요했고, 거기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대적하는 채무 증서를 제거하셨습니다. 채무 증서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주신 율법을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마치 채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빚을 탕감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율법으로 대적합니다. 정죄하고, 고소하고, 때로는 율법주의를 만들어서 올바른 구원으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한 가지 거짓말을 하기 위해 수많은 진리를 이용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유혹할 때도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사탄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13면에 계속)

기획

통일로 하나 되는 한반도를 꿈꾼다!

이산가족상봉,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호감도 및 동질감 상승 통일에 대한 세대별 인식 이해하고, 탈북민 섬기며 통일 준비해야

지난달 24일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마무리됐다. 이산가족 170가정 833명이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또 다시 기약 없는 이별을 했다. 아직도 약 5만7천명의 이산가족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다. 통일이 조속히 이뤄져야 이 비극적인 아픔이 반복되지 않는다. 통일이 되어야 할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통일이 왜 필요하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분석했다. 또한 통일에 대한 세대별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면서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아봤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반지 가져가라. 갓다 버리더라도 가져가라.” 93세 김월순 할머니가 북한으로 돌아가는 아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였다. 김월순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 에서 만난 72세 아들을 알아보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평생 그리워한 아들을 앞에 두고도 “이이는 누구야?”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런데 이산가족 상봉행사 마지막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김월순 할머니가 마침내 아들을 알아본 것. 김월순 할머니는 끼고 있던 반지를 아들에게 건네주며 마지막 작별인사를 했다.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린 금강산은 눈물바다였다. 70년 세월도 막지 못한 그리움을 눈물로 토해냈다. 꿈에도 그리던 가족들을 만나자마자 얼싸안고 눈물 흘렸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가족들은 단숨에

알아봤다. 김월순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이산가족들도 절절한 사연이 가득했다. 유관식 할아버지(89세)는 67년 만에 딸을 처음 만났다. 유관식 할아버지는 625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을 피해 가족과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 잠시만 떨어져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 이토록 긴 시간 동안 생이별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가족들과 헤어질 당시 아내의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아버지 없이 자랐을 딸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그토록 그리던 딸을 만난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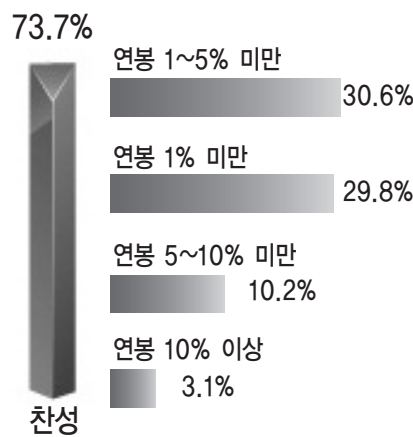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산가족 수는 13만2천6백3명이다. 생존자는 5만6천8백26명이다. 생존자 63.2%가 80세 이상 고령임을 감안하면 하루빨리 더 많은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려야 한다.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이산가족들이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해답은 결국 통일이다.

통일을 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

이산가족 상봉뿐만 아니라 통일을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들이 너무나 많다. 먼저 국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국방비 40%를 절감했다. 올해 우리나라 국방비는 43조2천억 원이다. 연봉이 4천1백만 원인 근로자 10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막대한 규모다. 국방비 40%를 감축하고 그 예산을 교육

통일비용 개인 부담 할 수 있나?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출처: KBS남북교류협력단



부문에 투입한다고 가정해보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조 원, 고교무상교육 예산 1조2천억 원, 대학원을 포함한 대학교 반값 등록금 소요 예산 10조 원을 충당할 수 있다.

경제발전에도 청신호가 켜진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작성한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논문을 보면 통일이 되면 평양에서 서울 사이에 1천 만 명 내외의 인구가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서울과 평양은 통일 이후 많은 인구를 갖춘 거대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다. 또한 통일 된 한반도 북부지역은 중국과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로 성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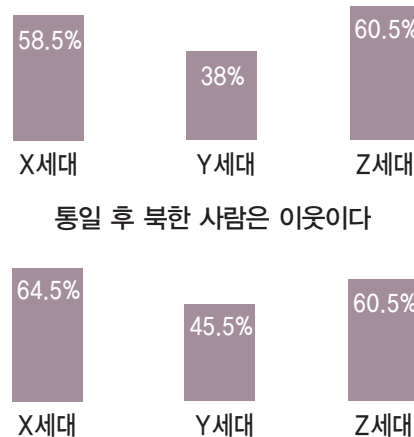
문화유산도 더욱 풍성해진다. 북한에는 선조교, 만월대, 공민왕릉, 평양성 등 이름난 문화재가 무수히 많다. 2007년에는 남한과 북한이 개성 만월대 유적을 발굴조사하기도 했다. 통일 이후 남한과 북한이 협력해서 문화재에 대한 연구를 이어간다면 찬란했던 우리 역사를 재확인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처럼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통일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

그렇다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서 전국 만 15세에서 48세 남녀 600명을 대상으

분단은 내 세대에서 끝내야 한다

전국 만 15세~만 48세 600명
출처: 대학내일20대연구소



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세대별 인식차이’를 조사했는데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호감도, 동질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상승했다. Z세대(1996년~2003년 출생자)는 북한에 대한 호감도가 11.5%에서 74%까지 수직 상승했다. Y세대(1981년~1995년 출생자)와 X세대(1970년~1980년 출생자)에 비해 변화폭이 매우 컸다. 북한에 대한 신뢰도는 X세대가 5.5%에서 49%까지 상승해 Y세대와 Z세대보다 높았다. 북한에 대한 동질감 또한 X세대가 29.5%에서 63.5%까지 상승해 변화 폭이 가장 컸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신뢰도는 모든 세대에서 50% 이하로 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호감도와 동질감은 상승했지만 신뢰도는 아직도 크게 좋아지지 않았다.

통일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도 분명하고 명확했다. X세대는 Y세대와 Z세대와 비교했을 때 통일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었다.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소 호의적이었다. X세대는 ‘통일 이후 북한 사람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는 질문에 64.5%가 찬성했다. Y세대 45.5%, Z세대 60.5%였다

Y세대는 Z세대와 X세대와 비교했을 때 통일에 대해 다소 냉소적이었다. ‘통일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40%만 찬성했다. ‘분단은 우리 세대에서 끝내야 한다’는 의견도 Y세대 38%로 Z세대(60.5%)와 X세대(58.5%)에 비해 낮았다.

Z세대는 “통일은 빨리 해야 하며 통일을 위해서 안정적인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Z세대는 평균 8.7년 이후 통일의 적정시기로 보고 있었다. ‘3년 이내에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30.2%였다 X세대(10.1%)와 Y세대(9.7%)에 비해 빠른 통일을 소망하고 있었다.

통일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를 종합하면 X세대는 북한을 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강하고, Y세대는 통일 이후 발생하는 득과 실을 냉정하게 따지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Z세대는 통일이 국가발전에 큰 도움이 되며 통일을 할 거라면 가급적 빨리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북한 이해하고 통일 준비하는 탈북민사역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을 이해하고 배워야 한다. 가장 좋은 학습법은 ‘탈북민 사역’이다.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탈북민들을 섬기면서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고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와있는 탈북민이 3만1천345명(2018년 3월 기준)이다. 그 많은 탈북민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활상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얼마나 고되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탈북민 실업률은 7%, 고용률은 57.9%였다. 탈북민 실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3.7%나 높고 고용률은 9.2% 낮았다. 전체 탈북자의 85%는 북한에 있을 당시 단순 근로자나 무직자였다. 요즘같이 취업이 힘든 시대에 탈북민들이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하늘에 별 따기인 이유다. 탈북민 정착지원금 1천만 원으로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 탈북민들의 생계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다. 물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탈북민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그래서 취업 세미나나 멘토 연결 등의 새로운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정책적으론만 탈북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교회를 포함한 민간차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역할을 교회와 성도들이 해줬으면 정말 좋겠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기고

“탈북민은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소망”



허원희 목사
(남양주 온누리교회
행복한하나예배)

요즘 통일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탈북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탈북민사역의 개관과 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나

누고자 한다.

북한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남한에 오기까지의 과정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다. 기막힌 사연들이 너무 많다. 1995년부터 시작된 대기근(고난의 행군)으로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 중국으로 갔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중국인과 결혼해도 보호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심각한 인권유린도 당했다. 젊은 처녀들은 인신매매 되어 팔려가고, 부부가 함께 탈북한 경우에는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팔아넘긴 일까지 있었다.

탈북민들이 고향을 떠나 남한에 도착해도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남한의 자유생활이다. 한 번도 자유로운 삶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에게 주어진 무한대의 자유는 그야말로 끔찍한 고통이다. 탈북민들은 하나원을 나오면 집을 배정받는다. 그 집에는 몇 가지 전자제품을 제외하고 가구도, 집기도 없다. 빈방에서 혼자 살게 된다. 밤이면 악몽에 시달리고 극심한 외로움을 겪는다. 탈북민 A자매도 감기에 걸려 집에 누워 있는데 찾아와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밥 지어 주는 이도 없어서 정말 죽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탈북 남성들의 경우에는 쉽게 돈을 벌 곳을 찾아 마약운반 혐의로 구속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여성들의 경우 윤락가(처음엔 노래방 도우미로 시작해서 결국은 성매매로 귀결됨)에서 일하는 숫자가 5천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한다.

탈북 여성들은 중국에 자녀를 두고 온 경우가 많다. 자녀들을 한국에 데려와도 그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부정적인 요소만 생각하면 탈북민에 대한 생각이 절망적으로 기울지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신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렘 29:11).

탈북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탈북민들을 결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존재로 보서는 안 된다. 통일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에게 희망적인 미래를 가져다주는 사람들로 봐야 한다. 하나님은 탈북민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온누리교회는 1999년부터 탈북민 사역을 시작했다. 청년부 지체들이 하나원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탈북민들과 교제하기도 하고, 양재



지난해 한가위불레싱에서 요셉공동체 성도들이 탈북민들과 요리하고 있다.

온누리교회에는 탈북민을 위한 ‘하나공동체’가 세워지기도 했다. 2010년부터는 ‘나들이사역’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탈북민사역을 시작했다. 나들이사역은 하나원을 수료한 크리스천 탈북민들이 수료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남한의 청년들과 만나 서울관광 및 한강유람선 타기 등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나들이사역이 성공적인 사역으로 인식되면서 한국기독교탈북민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한정협)라는 단체는 탈북민의 도시문화생활 체험 프로그램 일환으로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서울의 대형교회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온누리교회도 1년에 한번 권사회를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온누리교회에는 서빙고(한터), 양재, 부천, 남양주, 대전 캠퍼스에 탈북민을 위한 예배공동체가 있다. 각 공동체는 주일예배, 양육, 훈련, 수련회,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다. 정착도우미 제도, 공부방 운영, 직업알선 등의 사역도 병행하고 있다. 한터(가양동 소재)에는 어린이 도서관, 여성공방이 있고, 양재에서는 청년부와 협력하여 검정고시 공부반을 운영 중이다. 강북과 강남에는 남자, 여자 기숙사가 있어서 탈북민 대학생들의 학업을 돕고 있다. 남양주에서는 정착도우미제도를 활용한 전도와 양육을 하고 있다. 부천은 가족중심의 가정사역을, 대전은 정부종합청사에서 통일학교를 열고 지역 탈북민 전도에 힘쓰고 있다.

이처럼 온누리교회 5개 캠퍼스는 주기적으로 연합모임을 가지고 사역을 공유하고 있다. 2016년 여름에는 제주도로 연합수련회를, 겨울에는 스키캠프를 다녀왔다. 또한 온누리교회 통일분과위원회의 도움으로 주기적으로 탈북사역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통일에 대한 이론적인 기본기를 다지고, 한국 교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탈북민사역에 관심 있는 성도는 각 캠퍼스에 있는 예배공동체에 참여해서 탈북민들과 먼저 교제하고 그들을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하기를 추천했다. 탈북민은 서울에만 있지 않다. 각 지역으로 흩어져 집을 배정받기 때문이

다. 탈북민이 거주하는 곳이 곧 탈북민 사역지이다. 탈북민들은 보통 임대주택이나 임대아파트 단지에 몰려 있는데 최근에는 돈을 벌기 위해 수도권외곽의 공장지대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다. 경기도의 경우 공장지대가 밀집한 화성, 수원, 용인, 평택 등이 새로운 탈북사역지로 알려져 있다. 교회는 지역적 특성과 변화를 고려해서 예배공동체를 세워야 한다. 보통 탈북민들이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통일부 대외비에 속하기 때문에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하나센터와 한정협 같은 전문기관과 협력해서 사역하는 것이 현명하다.

최근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낳은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에 오는 경우가 급증해 육아와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역이 시급하다. 평택의 한 교회는 유아를 가진 탈북 여성들을 위해 보육원 사역을 시작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정원이 초과되고 시설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 한정협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반면 서울의 한 대형교회는 탈북민 사역을 시작하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 답보상태다.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과 정보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탈북민사역을 하기 전에 꼭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고 본교회 중심의 사역보다 초교파적인 사역을 해야 한다.

탈북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전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나센터의 정착도우미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서울 가양동에 있는 한터에 가서 봉사를 할 때도 식당봉사와 청소 등의 사역만 하지 말고 탈북민들과 교제해야 한다. 탈북민들은 함께 거들어 주고,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받기 때문이다.

탈북민 사역은 결국 통일사역이다. 탈북민 사역을 잘 해야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한 분단을 해체하고 지역만 통일할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통일이 진정한 통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다음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첫째, 복지가 아니라 복음이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탈북민들에게 금홍의 마음을 가지고 재정적으로 많은 투자를 했다. 교회에 나오

라고 교통비를 주기도 하고, 돈을 주면서 직장 훈련을 시키면서 양육하기도 했다. 그런데 부작용이 있었다. 돈을 쓰지 않으면 탈북민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복지는 교회가 안 해도 정부가 한다. 교회는 탈북민들에게 복지보다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관심과 사랑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역이 아니라 사랑이다. 우리는 탈북민들을 바꿔보겠다며 사역자 마인드로 그들에게 접근했다. 그러나 실패했다. 가양동 한터에는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방문해서 자원 봉사를 한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일만 하지 탈북민들과 만나는 봉사자는 극소수이다. 봉사자들은 그야말로 일만 하고 간다. 탈북민을 만나지도 않고, 만나서 나눌 이야기가 없고,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탈북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돈과 물질이 아니라 교제이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간관계가 형성되면 그들도 복음에 자연스럽게 문을 열 것이다.

셋째, 통일을 위해 탈북민에게 배워야 한다. 그들과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북한을 모르면 통일을 할 수 없다. 우리의 문화와 신앙을 가르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상황도 배우고 익히면서 하나 되어야 통일을 이룰 수 있다. 지금까지 통일준비는 정치, 경제, 문화적, 학문적으로만 접근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옆에 와 있는 탈북민에게서 그 방법을 배워야 할 때다. 그들에게 남한의 문화를 가르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문화와 사고방식 등을 배워야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인간을 위해 사셨듯이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탈북민들에게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임한다면 그들은 마음을 열고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한정협: 02-742-9182
한누리사역: 02-3463-9686

“‘꿈이자라는땅’을 도와주세요”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태안 온누리교회, 시설 관리자 및 재능기부자 모집



이재준, 백승희 부부(오른쪽)가 꿈이자라는땅(왼쪽)을 통해 지역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있다.

태안 온누리교회 이재준, 백승희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사)꿈이자라는땅(이하 꿈땅)’을 운영할 관리자와 재능기부자를 애타게 찾고 있다. 꿈땅은 초등학교생부터 청소년, 청년, 어르신, 다문화가정에 이르기까지 크리스천 문화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공간이다. 지역사회에 생기를 불어넣고, 다음세대에 꿈과 희망을 선물하는 것이 목표이자 비전이다. 그런데 지금 꿈땅은 공간만 있고 운영할 관리자와 재능기부자가 없다. 꿈땅 운영을 전담해줄 관리자와 요리, 영어 등 강좌를 개설·운영할 재능기부자가 있어야 다시 문을 열 수 있는데 안타까운 상황이다. 지역사회 복음화와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꿈땅은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시내 중앙에 있다. 근처에 태안중학교, 태안여자중학교가 있어서 청소년들을 만날 기회가 많다. 또한 어린이와 어르신, 다문화가정이 많아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여기보다 좋은 곳이 드물다.

이재준, 백승희 부부와 꿈땅

꿈땅은 이재준, 백승희 부부가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개관한 시설이다. 6년 전만 해도 태안중학교와 태안여자중학교를 둘러싼 골목길은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아지트였다. 그만큼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장소였다. 당시 그 근처에 살던 이재준, 백승희 부부는 왜 청소년들이 늦은 시간까지 골목길에서 방황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태안에서 나고 자란 이재준 집사는 청소년들의 방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당시 이 집사의 자녀들도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

랬다. 이 집사는 자녀들의 친구들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이 집사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방황하는 청소년 열 명 중 아홉 명이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다. 특히 부모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유일하게 위로 받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친구밖에 없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은 어두운 골목길뿐이었다. 청소년들을 위한 안식처가 절실했다. 때마침 이 집사 부부 소유의 빈 건물이 하나 있었다. 예비군 중대본부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사를 가면서 비어 있었다. 그곳을 탈바꿈해서 만든 공간이 바로 꿈땅이다. 이재준, 백승희 부부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꿈과 희망과 비전을 키워나가기로 소망했다.

이 집사 부부는 객지에서 공부하다가 1995년 태안에 다시 와서 치과를 개업했다. 1997년에는 친척과 함께 공장을 운영했는데 IMF가 불어닥치면서 문을 닫았다. 이 집사 부부가 부채를 몽땅 물려받게 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 와중에도 다음세대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았다. 이 집사 부부는 평소 “한 톨도 헛되지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게 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꿈땅이다.

꿈땅 설립 자체만으로도 청소년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었다.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도 거의 사라졌고, 방황하는 청소년들도 현저히 줄었다.

꿈땅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변화를 꾀했다. 청소년들이 모이는 공간으로는 제 기능을 했지만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재능기부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2015년 태안 온누리교회 한 성도가 꿈땅에서 카페, 도자기교실,

영어교실, 영화시청 교실을 열었다. 또한 봉사활동 수요처 기관으로 지정되어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찾아주기도 했다. 그중 하나가 다문화가정 결혼식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이다. 청소년들은 주말에 다문화가정이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 장식부터 하객, 축하까지 해줬다. 꿈땅에 와서 변화된 청소년들이 참 많다. 다문화가정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성스러운 결혼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기도 하고, 바리스타를 꿈꾸는 청소년도 있었다.

꿈이 생기고, 꿈을 주고, 꿈이 자라는 땅

청소년들을 위한 세상에 둘도 없는 공간으로 기능할 것 같았던 꿈땅에 위기가 찾아왔다. 꿈땅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태안 온누리교회 성도가 결혼을 하면서 떠나게 됐기 때문이다. 결국 꿈땅은 2016년 문을 닫았다. 청소년 봉사활동이나 찬양 예배를 드릴 때만 한시적으로 문을 열고 있다.

이재준, 백승희 집사는 꿈땅을 포기할 수 없었다. 꿈땅이 계속 청소년들과 지역사회를 위한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태안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조언도 구했다.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꿈땅의 새로운 비전도 발견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다. 즉, 초등학교생부터 청소년, 어르신, 다문화가정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 모두에게 열린 문화공간으로 기능하면서 지역복음화를 선도하는 것이 꿈땅의 새로운 비전이자 꿈이다.

꿈땅은 태안군 태안읍 태안중학교 뒤편에 위치해 있다. 목조 인테리어로 깔끔하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카페가 나온다. 카페에서는 커피는 물론이고 음식도 만들 수 있다. 카페에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왼쪽에는 갤러

리, 오른쪽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다. 중앙에는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도 있다.

태안 온누리교회는 올해부터 꿈땅을 공식적인 사역시설로 지정했다. 꿈땅이 다시 문을 열게 되면 태안 온누리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모든 하드웨어와 인프라는 준비되어 있다. 꿈땅을 운영할 관리자와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설 및 운영해 줄 재능기부자만 있으면 된다. 재능기부로 섬길 수 있는 영역도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생과 청소년을 위한 글쓰기 교실, 영어교실, 미술교실, 다문화 주부들을 위한 요리교실, 어르신들을 위한 지압교실 등이다.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이재준, 백승희 집사가 운영하고 있는 양계장과 매실농장에서 농촌체험을 할 수도 있고, 일자리도 창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꿈땅은 그야말로 꿈이 생기는 땅, 꿈을 주는 땅, 꿈이 자라는 땅이 되어야 한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소외된 지역주민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문화가정에게는 문화적 혜택을 나눠주면서 지역복음화를 이끄는 하나님의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태안 온누리교회 태동과 역사

태안 온누리교회는 원래 주님의교회였는데 담임목사가 나가면서 성도들이 흩어졌다. 2004년 양재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던 이재준, 백승희 집사가 그 소식을 듣고 주님의교회에 왔을 때에는 성도가 세 명 남아있었다. 이 집사 부부는 성도 3명과 함께 CGNTV로 예배드리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 그것이 지금의 태안 온누리교회의 초석이 되었다.

2007년 태안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온누리긴급재난구호팀 ‘렘프온’을 통해 온누리교회 성도 4천7백 명이 복구 작업을 왔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헌신적인 섬김이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줬고 그 일을 계기로 태안 온누리교회가 태동할 수 있었다.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의 송영동 목사가, 올해 6월부터는 임용성 목사가 담당하고 있다. 현재 태안 온누리교회에서는 성도 45명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 이소정, 김영선 기자

기도제목

1. 꿈이자라는땅이 태안 주민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되도록
 2. 태안군이 반목과 우상의 땅에서 영적 가난 땅, 비전의 땅으로 변화되도록
 3.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네트워크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 문의: 041-672-3657

남수단 친구들과 잊지 못할 추억 만들기

차세대 아웃리치팀 아프리카 우간다 난민촌을 가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정착하고 있는 남수단 난민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이 도착했다. 그 선물은 서빙고 온누리교회 차세대 아웃리치팀이다. 지난달 9일부터 12일까지 우간다 모요지방에 위치한 부드리 난민촌에서 있었던 작은 천사들의 사랑 나눔 현장에 동행했다.

/ 권찬송 kcs123@onnuri.org

“가와자~!! 가와자~!!”

아프리카 우간다 부드리 난민촌에 정착하고 있는 남수단 난민들이 낯선 방문객들을 보고 소리쳤다. ‘가와자’는 얼굴이 하얀 외국인들을 지칭하는 남수단 현지어(스와힐리어)다.

지난달 9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차세대 아웃리치팀(김재승 전도사, 교사 5명, 차세대 7명)이 우간다 모요지방에 위치한 부드리 난민촌에 도착했다. 내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남수단 난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사명을 품은 팀원들의 눈빛은 반짝였다. 무더운 날씨도 흘날리는 모래도 그들의 사명을 막아설 수는 없었다.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친구들이 온 것이 마냥 좋을까? 부드리 난민촌 차세대들이 활짝 웃었다. 차세대 아웃리치 팀원들은 친구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줬다. 짧지만 강렬했던 3박 4일 동안의 아웃리치는 서로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기에 충분했다.

친구 만나러 가는 멀고도 험한 여정

한국에서 아프리카 우간다 부드리 난민촌까지 가는 여정은 멀고도 험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우간다 엔테베공항까지 직항으로 운행하는 항공편이 없다. 두바이 공항을 경유해야 갈 수 있다. 차세대 아웃리치팀은 비행기 안에서부터 남수단 친구들과의 만남을 기대했다. 친구들을 위한 기도도 잊지 않았다.

구건룡 학생(14세)은 이번 아웃리치에 자진해서 참가했다. 남수단 친구들을 너무 만나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최강준 학생(15세)도 남수단 친구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려고 참가했다. 그 아름다운 마음가짐들이 멀고 험한 여정을 견딜 수 있는 힘이었다.

우간다 엔테베공항에 도착하기까지 장장 20여 시간이 소요됐다.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 우간다 엔테베공항에서 우간다 소도시 ‘글루’까지 자동차로 꼬박 7시간을 더 이동했다. 부드리 난민촌 방문에 앞서 글루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다. 장거리 이동으로 몹시 피곤했다. 그래도 남수단 친구들과 아웃리치를 위한 기도를 멈출 수는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이다.

아웃리치 첫 순서는 지난달 9일 있었던 부드리프라이머리스크를 준공식 공연이었다.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멋진세상이 임시 천막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부드리프라이머리스크

학생들을 위해 올 초부터 벽돌로 학교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 건물이 드디어 완공됐다. 차세대 아웃리치팀은 멋진 공연으로 준공식 피날레를 장식했다. 차세대 아웃리치팀원 7명이 찬양에 맞춰 율동을 선보였는데 몸짓 하나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었다.

준공식에서 만난 13살 소년 바니 풀라비아는 “차세대 아웃리치팀의 공연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박수갈채를 보냈다.

‘복음캠프’와 친구들

이번 아웃리치의 하이라이트는 부드리프라이머리스크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음캠프’였다. 말 그대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 ‘복음캠프’였다. 물론 곡절도 있었다. 캠프 첫날 아침부터 큰 문제가 발생했다. 예정된 캠프 첫 순서가 ‘찬양 율동’이었는데 음향기에 문제가 생겨 그 순서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대처가 탁월했다. 오후 활동과 오전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기로 했다. 그렇게 바뀐 복음캠프의 첫 순서는 줄넘기, 림보, 깔판 뒤집기 등 게임이었다. 부드리프라이머리스크 학생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웃음소리가 만개했다. 오전에 문제가 있었던 음향기가 오후에는 작동되어 찬양 율동, 스킷 드라마, 챔버 등의 공연도 문제없이 할 수 있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 씻기 교육도 실시했다. 송유현, 최호준 교사가 진행했다. 이곳 차세대들이 청결하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섭취해서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차세대 아웃리치 팀원들은 손 씻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면서 교육했다. 부드리프라이머리스크 교사 라이머(38)는 “손 씻기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위생에 대한 개념이 생긴 것 같다”며 무척 고마워했다.

차세대 아웃리치팀은 공연과 교육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신앙고백도 들려줬다. 그들의 간증은 무척 진솔하고 애절했다. 김예원 학생(16세)은 “하나님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했고, 박찬미 학생(15세)은 “부드리프라이머리스크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소망했다. 친구들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은 14살 소년 기브란은 눈물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루하루가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도



차세대 아웃리치팀이 부드리프라이머리스크 학생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한국 친구들의 진심어린 고백을 들으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됐어요.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차세대 아웃리치팀은 그 밖에도 플라로이드 사진 찍기, 에코백에 그림 그리기, 비눗방울 놀이, 매니큐어 발라주기, 풍선아트 등의 활동을 통해서 부드리프라이머리스크 학생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보석 같은 교사들, 성장하는 차세대

복음캠프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보이지 않는 헌신이었다. 교사들의 헌신은 한 마디로 보석 같이 빛났다. 특히 이번 차세대 아웃리치팀장을 맡은 박해정, 김봉비 교사의 헌신이 돋보였다. 차세대 아웃리치 팀원들의 식사와 간식, 모기약 등을 챙기고 컨디션까지 조절했다. 그들의 손길이 향하지 않는 곳은 없었다. 그만큼 최선을 다해 섬겼다. 최호준 교사는 캠프가 진행되는 내내 무거운 짐을 나르고 허드렛일을 도맡았다. 그는 최경주 이사

장(최경주 재단)의 아들이다. 차세대 아웃리치팀이 우간다 난민촌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동생(최강준)과 함께 신청했다. 홍채윤, 송유현 교사는 차세대들이 무사히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NGO 더멋진세상 선교사는 식사봉사와 차량봉사를 섬겼다. 김재승 전도사는 캠프의 모든 일정을 총괄하고 말씀을 전했다.

차세대 아웃리치 팀원들은 한층 성장했다. 고된 여정에도 누구 하나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았다. 늘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종명 학생(15세)은 “아웃리치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나눔의 기쁨이 훨씬 컸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작은 나눔을 통해 남수단 난민촌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했다. 최유찬 학생(16세)은 “아웃리치 기간 동안 읽은 말씀이 큰 은혜였다”며 “한국에 돌아가서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다”고 했다. 김래영 학생(16세)은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했다”고 간증했다.

병원사역, 그 눈물 나는 이야기

“정말 줄을 잘 섰다 예수님 뒤에…!”

삼성서울병원 초대원장 故 한용철 박사의 삶과 신앙

‘줄을 잘 서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 중 하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 자녀들의 유치원 순번을 받기 위해, 승진을 하기 위해서 등 그 이유도 다양하다. 세상에 많고 많은 줄 중에서 단연 으뜸인 줄이 있다. 바로 예수님 뒤에 서는 줄이다. 천국에 가는 예수님 줄은 그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줄보다 값지다. 세상의 부와 명성을 손에 쥔 고 한용철 원장(삼성서울병원 초대원장)은 마지막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 뒤에 줄을 섰다. 한용철 원장에게 복음을 전한 김정숙 목사(삼성서울병원 원목)가 그 순간을 회고하며 쓴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삼성서울병원에서 만난 동역자들(우측부터 이원로 장로, 신경자 권사, 김정숙 목사, 정우영 권사, 김보경, 한동훈 부부, 손한기 장로), 고 한용철 원장(우측 상단).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창 2:7).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던 사람들도 먼저 믿은 자가 조금만 터치해도 그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빛을 발하는 것을 보게 된다. 모든 성도들은 한 영혼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주님께 쓰임 받는다.

20여 년 전 어느 날, 삼성서울병원 건강종합검진센터에 근무하던 신경자 권사님께서 나에게 중요한 부탁이 있다고 하셨다. 부부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용철 초대병원장님의 전도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원로 장로(전 삼성서울병원 심장내과 부장)님과 신경자 교수님께 서는 한용철 원장님께서 폐암을 앓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구원에 대해 염려 하셨다. 한용철 원장님은 삼성서울병원 초대원장으로 우리나라 의학 수준을 높인 존경받는 의료인이다.

이원로, 신경자 교수 부부는 한 원장님이 이대로 죽음의 터널을 지나간다면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에 대한 많은 고민을 털어놓으셨다. 당시 나는 삼성서울병원 초대원장님을 감히 만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염려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복음을 전

할 적절한 기회와 지혜를 주시라고 말이다. 병원 복도에서 원장님을 만나면 나는 인사를 잘했고 원장님은 방긋이 웃어주시곤 했다. 원장님은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듯 했다.

‘복음 전하기’ 첩보작전

일 년이 지나갈 무렵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다. 원장님의 몸이 많이 소진되어 가실 즈음이었다. 원장님은 19층에 마련된 입원실에서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원장님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 나도 19층 입원실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다. 그날은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날이며 부족한 나에게 주어진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다. 본래는 과장급 이상 의사들이나 임직원들이 소전을 앞둔 원장님께 인사를 하는 자리였다. 이원로, 신경자 교수님 부부와 크리스천 의사들이 나도 원장님을 뵈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줬다.

본디 불교 집안인 원장님의 병실 거실에는 스님 두 분이 자리하고 있었다. 어느 때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병실에 들어갔다. 원장님께서 나를 보시자 반겨 주시며 오른손을 내밀어 손을 잡아 주셨다. 그동안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한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였다. 원장님의 오른손을 두 손으로 감싸고 복음

을 전했다. 이 짧은 시간에 전하는 복음이었지만 전략적이면서 정확하고 확실한 내용이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 들어갔다.

“존경하는 원장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누구보다 지금 이 시간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하고 계신 줄 압니다.”

원장님은 해맑게 웃으시면서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셨다.

“죽음 이후 세계가 있음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장님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시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원로 교수님 부부를 통해 부족한 저를 이 시간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으로 먼저 입문하면 훗날 믿지 않은 가족들도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입고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을 이야기 했다. 원장님이 먼저 천국 가서 가족들이 인도 되도록 기도해달라는 권면도 빼놓지 않았다.

원장님은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누리셨다. 교수로, 학자로 후학들에게 의술을 전수했고, 의사로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셨다. 이 세상에서 받은 수많은 축복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완전하게 성공적인 삶은 아니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한 가지 복을 더 받으시면 완전하고 성공적인 삶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아 천국에 이르신다면 참으로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예수님 길이 되시고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면 꼭 잡아 주십시오.”

원장님은 두 손으로 내 손을 잡아 꼭 눌러 주셨다. 지면에 다 기록할 수 없지만 그 짧은 시간 전한 농축된 복음은 한 사람의 영혼에 수혈되어 갔다. 하나님과 원장님과 내가 함께 해야 할 일을 이룬 복된 시간이었다. 나는 마음으로라도 기도하실 수 있게 단호하게 영접기도를 해 드리고 다시 한번 한용철 원장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하고 일어서는데 내 연약한 허리에 통증이 있었고 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병실을 나왔을 때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던 스님과 가족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 채 나를 배웅해 주셨다. 이 일은 원목으로서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전한 복음이 초대병원장님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요, 축복이요, 선택이었다. 그 후 미국에서 오신 원장님의 누이와 함께 한 번 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다. 그날은 찬송도 불러 드리고 성경도 중요한 곳을 읽어 드렸다. 원장님은 모두 이해한다는 눈빛을 보내 주셨다. 해맑은 얼굴에는 아무 두려움이 없는 듯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났다. 며칠 뒤 당시 삼성서울병원 선교 담당이셨던 윤형주 장로님이 원장님께 한 번 더 복음을 전했다. 원장님은 소전을 앞둔 짧은 시간에 몇 번 복음을 듣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천국에 가셨다.

1999년 3월, 눈이 펄펄 내리고 있던 그날은 원장님의 장례식 날이었다. 현재 암병원이 세워진 그 자리가 당시에는 넓은 주차장이었다. 그 넓은 주차장이 조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장례는 불교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한 원장님의 고귀한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니 나는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맨 뒤에서 서서 하늘을 쳐다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주님, 원장님 천국에 잘 계시지요? 영혼은 천국으로 육신은 흙으로 할렐루야!”

오랫동안 의료계에서 함께 일하면서 그분의 인품과 지성과 덕망을 존경해오신 이원로 교수님과 신경자 교수님 부부의 간절함이 없었더라면 이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천국에서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계실 한용철 원장님과 만나면 이 첩보활동 같은 이야기가 계속 될 것이다. 원장님은 가족들도 구원에 이르기를 천국에서 기도하고 계시다.

장례식 이후 한 원장님이 복음을 받아들이신 사실이 이원로, 신경자 교수님을 통해 몇몇 직원들에게 알려졌다. 당시 간호본부장이 내 손을 잡으며 하신 말을 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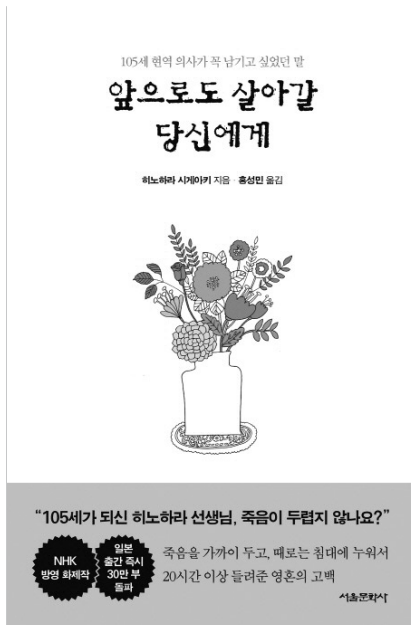
“목사님 그분은 분명히 줄을 잘 서셨을 것입니다.”

원장님은 직원들에게 훈시하실 때 간혹 조크로 “사람은 줄을 잘 서야 한다”고 했으니 분명히 줄을 잘 서셨을 거라는 의미다.

“원장님도 우리 모두도 정말 줄을 잘 섰다. 예수님 뒤에…!”

병원사역 문의: 010-3412-7966

꼭 한번 읽어야 할 책



〈앞으로도 살아갈 당신에게〉
히노하라 시게아키 저 | 서울문화사 | 11,800원

이 책은 와지마 토타로(테너 배재철 매니저)라는 사람의 헌신으로 탄생했다.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저자 ‘히노하라 시게아키’

의 자택에서 와지마 토타로와 매일 나누었던 인터뷰와 대화를 책으로 엮었다.

히노하라 시게아키는 1911년 10월 4일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태어났다. 교토대학교 의학 부를 졸업하고 1951년 세이로카국제병원 내과의로 부임했다. 미국 유학 이후 1992년부터는 세이로카국제병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러브소나타 집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악가 배재철과의 인연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목소리를 잃은 성악가 배재철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다.

히노하라 시게아키는 자신이 만든 곡 ‘사랑의 노래’를 배재철이 부른 것을 듣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목소리”라고 극찬했다. 배재철과 히노하라 시게아키는 나이를 초월한 우정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다.

히노하라 시게아키는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살았다. 그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오랜 세월을 살게 하신 이유를 남을 위해 여생을 보내라고 해석하고 실제 그렇게 살았다. 그는 105세까지 현역 의사로 활동했다. 흔하지 않은 일이다. 100세가 넘어서도 현역 의사로 일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이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명(使命)

“당신들이 생각하는 현역 의사로서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회사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얼마를 버는지 그런 것이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얼마나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가, 좀 더 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이라는 시간을 얼마나 남을 위해 쓸 수 있는가가 내게는 일을 한다는 의미이다. 다르게 말하면 그것은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사명과 마주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삶과 일이 일체화된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현역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있는 사람이었다.

또한 이 책은 오랜 세월을 살다간 그의 삶에서 찾은 죽음과 사랑, 용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해답은 오직 성경이며 하나님이다. 히노하라 시게아키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마주하게 되는 죽음에 대해서는 두렵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러나 죽음은 또 하나의 미지의 세계라며 그 세계를 즐겁게 만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삶의 중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게 하신 이유를 찾았다고 했다. 그 이후 삶은 남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삶을 나눠줄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마 하나님께

서 그를 오래 살게 하셔서 다른 이들에게 그런 삶을 공유하게 하신 것은 아닐까?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부름 받은 목회자이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헌신하고 있는지를 돌아봤다. 특히 평생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생명을 살려왔던 히노하라 시게아키 선생이 일본 최초로 비행기가 납치된 ‘요도호 사건’에서 살아남은 다음 아내에게 “이제 평생을 남을 위해 살자”고 고백하는 장면에서 충격을 받았다. 의사로서 사람들을 살리고 있었는데도 평생 남을 위해 살자고 다짐하는 그 고백이 어떤 의미였을까?

“의사는 과학에 기반을 둔 예술이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행위이다.”

하나님께서 히노하라 시게아키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알려 주고자 하셨던 수많은 이야기가 이 책에 녹아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겼던 말을 나도 독자들에게 남겨본다.

“Keep on going
(계속 전진하라).”



최성석 목사
(이수공동체)

볼만한 공연 뮤지컬 ‘오, 마이갓스’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처방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복음’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중독에 빠져 산다.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그 종류도 다양하다. 중독은 대인관계, 업무, 학업, 건강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만큼 중독은 우리 일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도 황폐하게 만든다. 여기 중독에 빠져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신랄하게 묘사한 뮤지컬이 있다.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 밖에 없다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처방전도 제시해주는 속 시원한 작품이다. 이 뮤지컬의 제목은 ‘오, 마이갓스’이다. 뮤지컬 ‘오, 마이갓스’ 한 편 보는 것만으로도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샘솟는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뮤지컬 ‘오, 마이갓스’는 돈, 일, 아이돌 스타, 건강, 불륜, 완벽주의, ‘나’라는 신에 빠져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 뮤지컬은 2000년대를 배경으로 현대인들을 중독에 빠뜨린 온갖 잡신들을 찾아내는 게임을 소재로 만들었다. 오직 복음만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뮤지컬 ‘오, 마이갓스’는 1999년 알과핵 소극장에서 무명 배우들이 초연했다. 2000년에는 한층 더 재미있게 기획해서 ‘갓스’라는 제목으로 앙코르 공연을 했다. 당시 대학로뿐만 아니라 전국을 돌며 공연했는데 객석 점유율이 80%를 넘을 정도로 흥행했다. 갓스에서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된 이 뮤지컬은 ‘더 플레이’라는 이름으로 또 한 번

비상했다. 2002년 제8회 한국뮤지컬대상에 최우수작품상, 극본상을 포함해서 5개 부문을 수상하며 교계와 뮤지컬계에 신선한 충격을 줬었다. 이번에 막 오르는 ‘오, 마이갓스’는 역대 개작(改作) 중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뮤지컬 오, 마이갓스는 아티스컴퍼니와 극단 광야가 공동기획 및 제작했다. 아티스컴퍼니는 2017년 송정미 뮤지컬 콘서트 ‘크리스마스 인 러브’, 2018년 뮤지컬 ‘요한 계시록’을 제작 및 기획했고, 올해는 어린이 복음 뮤지컬 ‘오병이어’를 선보였다. 극단 광야는 아티스컴퍼니가 창단한 전문 기독교 뮤지컬 팀이다.

뮤지컬 오, 마이갓스에는 배우 김아진, 김재광, 방미연, 심재성, 염예은, 윤은채, 이미

연, 이윤희, 임채영, 장한얼 등이 출연한다. 오, 마이갓스 공연은 9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평일 저녁 8시, 토요일과 공휴일 오후 2시 대학로 작은극장광야(서울 종로구 동숭동 187-8 쇄대박물관 지하1층)에서 막 오른다.

티켓예매는 작은극장광야 홈페이지(<http://stgwangya.modoo.at>)나 인터파크, YE S24에서 하면 된다. 가격은 9월 2만 원, 10월 2만 5천 원, 11월 이후 3만 원이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5천 원이 추가된다. 초등학생(만 7세)부터 관람이 가능하고, 공연이 시작되면 입장이 제한된다. 사전에 협의되지 않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도 불가하다.

문의: 02-741-9282

010-9568-9182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원 개관 13주년 축하공연에서 큰 박수를 받은 '얼렁뚱땅 합창단'.

“더 잘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원 개관 13주년

“더 잘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개관 13주년을 맞은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원 임직원들이 입소 어르신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지난달 24일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원이 개관 1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

에는 정호욱 목사, 이기훈 목사, 조항진 장로, 송영범 장로, 입소 어르신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행사는 예배, 우수 직원 표창, 어르신들의 특별공연, 케이크 커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곽금봉 원장(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원)은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원

과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해주시고 늘 기도해주시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덕분에 개관 13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입소자 김귀순 어르신은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원에 살면서 천국 가겠다”고 말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오늘, 첫 번째 스페인어예배 드린다!

매주 주일 오후 2시 도곡 온유희

오늘(2일) 오후 2시 도곡교육관 온유희에서 첫 번째 스페인어예배를 드린다. 스페인어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린다. 온누리M미션 소속 스페인어예배는 스페인어권 나라 복음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전문 선교사를 양성

하는 것이 비전이자 목표다. 페루 출신 네이라 목사가 담당한다. 한편 스페인어예배에서 동역할 봉사자를 찾고 있다. 기타, 건반, 드럼 등을 연주할 수 있는 찬양팀, 음향팀, 전도팀원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 010-4924-2703

온누리교회 선교역사 자료 모집

2000선교본부에서 온누리교회 선교역사 자료를 모집하고 있다. 온누리신문이 창간하기 전인 1994년 이전 자료가 전무한 상태이다.

채현석 실장(2000선교)은 “혹시 집에 보관하고 있는 온누리교회 선교관련 역사 자료라면 무엇이든지 좋다”면서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2000선교본부는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선교역사 자료실’을 오픈할 예정이다.

문의: 010-7336-7387

대청, 바이블 아카데미 개강

9월 12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학청년부 바이블 아카데미(Bible Academy)가 9월 12일 개강한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 이룸(한성대 에듀센터)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각 공동체에서 받는다. 당일접수도 가능하다. 회비는 일대일 양육자반 5만원, CDC,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HOW, Why Mission?, 비전의 사람 4만원, 그 외 3만 원이다.

바이블 아카데미는 리더십 훈련을 위한 필수과정과 영적성장을 위한 선택과정이 있다.

필수과정은 CDC(Cristian Discipleship Course), 큐티, 일대일 양육자반이다. 선택과정은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HOW(Heart Of Worship), Why Mission?, True Love, 더 깊은 기도, OWA(Onnuri Wordview Academy), 비전의 사람이 다. 문의: 02-3215-3759

은퇴 이후 인생을 유익하게!

은빛날개 세미나, 갈렙선교학교 개강

은퇴 이후 인생의 후반기를 유익하게 보내기 원하는 성도들을 위한 스쿨이 개강한다. 은빛날개 세미나와 갈렙선교학교가 그것이다. 은빛날개 세미나는 9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홍보관에서 진행된다. 노치형 목사(강동 온누리교회),

문영재 목사(CGNTV), 박창우 교수(차의과대학)등이 건강, 재정, 영성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소망교도소를 방문하는 활동도 있다. 회비는 1만 원.

갈렙선교학교는 9월 17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2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황종연 목사(Acts29비전빌리지), 노규석 목사(온누리M미션), 정광렬 장로 등이 선교사의 이해와 돌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 돌아보기, 미션 헬퍼십, 국내 이주인 선교, 선교사와 동역하기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회비는 6만 원.

은빛날개 세미나 02-3215-3434
갈렙선교학교 010-9119-3608

두란노바이블칼리지 9월 세미나

두란노바이블칼리지에서 준비한 다양한 세미나가 개강한다. 포문은 종말론 일일특강 ‘성경적 관점에서 본 종말이란 무엇인가’가 연다. 9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도곡교육관 기쁨홀에서 진행된다. 이필찬 소장(이필찬 요한계시록 연구소)이 강의한다. 회비는 5만 원.

문의: 02-2078-3456

‘기독교 고전문화와 영성의 역사’ 세미나는 9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콘서트홀에서 오후 2시에 막 오른다. 어거스틴 <고백록>,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아가서 강해>, 루터 <그리스도인의 자유>, 파스칼 <팡세>, 노리치의 줄리안 <사랑의 계시>, C.S.루이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등 대표적인 기독교 고전에 담긴 영성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과정이다. 회비는 15만 원. 문의: 02-2078-3264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크리스천 인재를 키우는 교육법을 배우는 ‘5차원 달란트교육’ 세미나는 9월 10일 오전 10시 두란노서원 본사 블레싱홀에서 열린다. 원동연 박사(KAIST 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가 강의한다. 회비는 5만 원. 문의: 02-2078-3275

182기 온누리 순장학교 9월 9일 개강

182기 온누리 순장학교가 9월 9일 개강한다. 매주 주일 오후 4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신청은 9월 9일까지 아이스쿨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으면 된다.

제주 드림교회 공사입찰

온누리선교재단에서 ‘제주 드림교회 증축공사 입찰’을 진행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개월(예정)이고, 규모는 약 3471㎡(지하 1층, 지상 2층)이다. 1차 서류심사, 2차 입찰등록을 실시, 서류마감은 오는 9월 10일 오후 3시까지다.

문의: 02-3215-3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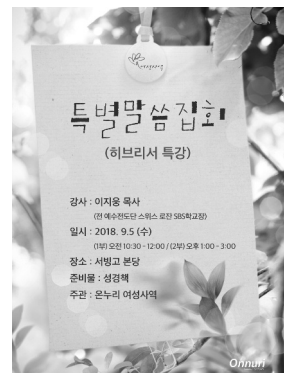
여성사역, ‘이지웅 목사 히브리서 특강’

9월 5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여성사역이 ‘이지웅 목사 히브리서 특강’을 개최한다. 9월 5일 수요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1부는 오전 10시 30분, 2부는 오후 1시에 진행된다.

이지웅牧사는 전 예수전도단 스위스 로잔 SBS학교장이다.

문의: 02-3215-3201



새사람사역팀 봉사자 모집 및 특강

새사람사역팀에서 봉사자를 모집한다.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예배(찬양, 악기 연주 등), 일대일 제자양육(3회 이상 양육한 사람), 큐티 나눔 등을 인도할 수 있는 성도면 된다. 백종신 팀장은 “새사람사역은 교도소를 방문해서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의미 있는 사역”이라고 소개하면서 “평일에

시간을 낼 수 있는 성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새사람사역팀에 관심 있는 성도들을 위한 1일 특강이 열린다. 9월 6일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교도관이 들려주는 교도소사역’을 주제로 여주 소망교도소 김무열 과장이 강의한다.

문의: 010-3625-0266

■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 수료 간증



/ 이란란 성도(중국어예배)

내가 변화된 것처럼

나에게는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 같은 부부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희망하고, 갈망했으며, 현재 삶에 변화가 있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나는 결혼한 지 4년 되었다. 그런데 결혼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었다. 관련 교육을 받아본 적이 전혀 없었다. 모든 것을 부모님의 생각을 따랐다. 부모님을 보고, 부모님이 하는 그대로 따라 살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에 참여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결혼은 우리가 배워야 하고 노력해야 하는 깊은 학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도 더 많은 부부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에서는 몇 가지 측정 검사를 한다. 중국 속담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다. 이 검사를 통해 내가 어떤 성격유형인지를 알게 되었다. 나의 성격을 먼저 알고 배우자의 성격유형까지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음으로 인해 생기는 대화 유형을 알려준다. 또한 소통하는 부부로 발전하도록 도와준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소통 잘하는 방법

을 알려 준다.

가정이 건강하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검사도 도움이 되었다. 그 검사를 통해 얻은 점수로 나의 결혼생활이 위기에 놓여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나는 문제를 깊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상적인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결혼 생활에서 발생하는 부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은 우리 가정과 나의 결혼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화되었다. 하나님을 통한 내면의 변화이기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많은 부부들에게 말하고 싶다. 내가 변화된 것처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배우고, 느끼고, 깨닫기를 바란다.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182기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
개강: 9월 8일 오후 3시(서빙고 비전홀)
문의: 010-9041-5538

■ 남아시아 N국 아웃리치 간증



/ 김병희 집사(신용산공동체)

그저 파수꾼으로서...

나는 아웃리치팀보다 4일 먼저 남아시아 N국에 도착했다. 그 다음 날에는 미국에서 오는 자녀들을 마중하기 위해 공항에 갔다. 가족이 다함께 선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다. 우리 가족은 남아시아 N국 A지역을 순례했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이 나라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두꺼운 돌에 불교의 여신상, 반야나 무, 코끼리 등을 조각해서 모자이크처럼 만든 작품을 잇을 수가 없다. 불교와 힌두교 문화가 잘 섞여져 있었다. 그 작품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는지가 느껴졌다. 안타까웠다.

신용산공동체 아웃리치팀과 합류한 다음에는 1선교사님을 만났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생각만 해도 설렜다. 아웃리치팀원 39명과 1선교사님이 함께 사역지로 향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수 6:20)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고가 무너진 것처

럼 남아시아 N국의 우상도 무너지리라는 믿음이 생겼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의료사역을 시작했다.

우리 가족은 치과진료를 맡았다. 진료를 시작하자마자 줄을 섰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는 꼬마스님이었다. 그 꼬마스님은 발치치료를 받았는데 주먹을 쥐고 참는 모습이 대견했다. 나는 꼬마스님의 손목을 잡고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말이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아도 영이 통하는 것을 믿는다.

남아시아 N국 주민들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야 150불 정도 버는데 치과진료를 한 번 받는데 80불이나 든다. 그래서 진료를 받을 생각조차 안 한다. 그동안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려왔다. 이곳 사람들에게는 양치 습관이 전혀 없었다. 양치질 하는 것을 보여주고, 현지 교사에게 구강교육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만지시고, 그들의 삶이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저 파수꾼으로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 내년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있는 곳에서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인천 의료선교팀과 대학청년부의 연합



/ 정진호 팀장(인천 온누리교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인천 온누리교회 의료선교팀과 대학청년부 WEB공동체가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 남아시아 N국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 나라는 1970년대 초 공산혁명으로 인구의 1/4이 학살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가해자이자 피해자의 모습으로 얹혀 있다.

그들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다. 남아시아 N국은 복음화율이 1.5%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번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 입은 그들을 위로 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 팀원 모두가 위로자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다.

또 그들을 치유하실 하나님의 손이 되어 그

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팀이 되고자 기도하고 있다. 이번 아웃리치에는 차세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참여한다.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이다. 아직 여호와와의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이 영적인 전쟁을 배워 가는 귀한 경험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전에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사 3:2).

뿐만 아니라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인천 의료선교팀이 한 단계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바란다. 의미 있는 의료선교의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WEB공동체 역시 선교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마지막 주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한다. 현지 교회를 겸손하게 섬기고, 선교사님을 잘 도울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부탁한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사 40:1).

■ 온누리 남성선교합창단 스태프 간증



/ 배병곤 총무(온누리 남성선교합창단)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 가면 남성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병으로 세워진 ‘온누리 남성선교합창단’이다. 2002년 6월 창단해 올해 17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다.

올해 온누리 남성선교합창단의 표어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이다. 상반기에는 ‘9시에 뜨는 별’, ‘물댄동산교회’, ‘남양주 온누리교회’, ‘음성 예랑교회’ 등에서 찬양을 불렀다. 하반기에는 정기연주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온누리 남성선교합창단은 러브소나타 샹포로 후속 프로그램으로 블레스 아웃리치를 갔다. 단원 참여, 부족한 재정, 현지교회 확정, 비행티켓 등을 해결하느라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단원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로 걱정이 해소됐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우리는 샹포로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Grace Community Church)와 신생교회에서 찬양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과 성도

들을 축복했다. 그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다. 샹포로 아웃리치 이후에도 그 감동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이번 샹포로 아웃리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누리 남성선교합창단에게 주신 선교비전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그 답은 2002년 온누리 남성선교합창단을 창단할 때 하용조 목사님께서 미국주 전 단장님에게 하신 말씀에서 찾을 수 있었다. 하 목사님께서는 이 전 단장님에게 “뉴욕에 있는 300명의 남성합창단을 모델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온누리 남성선교합창단 단원은 35명이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리라 믿는다.

“자네의 시작은 보잘 것 없을 지라도 자네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세”(욥 8:7).

욥기 말씀처럼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온누리 남성선교합창단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

문의: 010-7222-4071

장로칼럼

성장하고 변화하는 평택 온누리교회



박지수 장로
(평택 온누리교회)

나는 2001년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출석했다. 당시 직장문제로 순장님께 기도를 받았다. 그 기도의 감동과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평택으로 이사를 갔다. 내가 평택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원 온누리교회가 창립됐다. 그리고 1년 뒤 평택에 기도처가 생겼다. 그때부터 나는 평택 기도처를 섬기기 시작했다. 2005년 말 평택 기도처는 캠퍼스 교회로 승격 되었다.

평택 기도처 초기에는 자녀들을 포함해서 성도가 30명 정도 있었다. 당시 이웃 교회와의 문제로 교역자들은 못 내려오시고 장로님들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다. 장로님들께서 강대상에서 <생명의 삶>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다. 그때마다 말씀을 전해 주시던 장로님도, 우리도 눈물을 펄펄 쏟곤 했다. 매 순간 감동과 은혜가 넘쳤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된다.

평택 온누리교회는 13년 동안 상가 건물 한층만 사용하다가 이제는 두층을 사용하고 있고, 교육관도 생겼다. 처음부터 캠퍼스로 시작된 다른 국내 캠퍼스 교회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열악하다. 하드웨어와 수치화된 통계 자료만으로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평택 온누리교회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많은 경험과 성숙의 시간을 보냈다. 이제는 급격히 팽창하고 변화하는 평택의 환경에 맞춰 하나님께서 평택 온누리교회를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교회로 성장시키고 계신다.

나는 중고교 시절과 대학시절에 기독교에 대한 막연한 반감을 알량한 자존심으로 내세웠었다. 하지만 5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내를 만나면서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또 귀한 여러 집사님들, 순장님들, 장로님들의 도움과 교회의 여러 양육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 많은 분들이 고백하듯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동안 평택 온누리교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에는 파워웨이브와 몽골어예배가 한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렸는데 작년부터는 몽골어예배가 평택역 인접한 곳에 생긴 평택M센터로 이전했고 부흥하고 있다.

평택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신앙도 더욱 더 성숙해졌다. 차세대 교사로 섬기는 집사님들은 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한다. 일대일 사역팀 집사님들이 회의할 때면 눈빛이 반짝거린다. 새가족사역팀은 전보다 더 환한 미소와 한층 더 높은 톤의 목소리로 새신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시니어팀과 권사님들 중심의 중보기도는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다. 예배를 준비하는 음향팀과 밴드, 싱어로 섬기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도 본당을 가득 채우고 있다. 몇몇 집사님들은 자원해서 성도들에게 커피와 토스트를 제공하고 계신다.

평택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리더십,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상상도 하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일하실 줄 몰랐다는 고백과 함께 찬양할 것이다.

권사칼럼

보석 같은 놀라운 선물



박세연 권사
(한강공동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와 말씀이다”(사 55:8).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다. 하나님은 아웃리치에 대해 관심과 사명이 전혀 없었던 나에게 새로운 소망과 꿈을 주셨다.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가족 잔치에 참석하게 됐다. 새가족 잔치에서 아무 생각 없이 새신자들에게 무심코 한 마디 했다.

“아웃리치 가보살래요?”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획하시고 움직이셨다. 새신자들은 내가 했던 말에 눈빛이 반짝였다. 그들은 내게 아웃리치에 관심 있다고 말하면서 한번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혹여나 하룻밤 사이에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걱정했다. 나는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다음 날, 감사하게도 그 새신자들이 아웃리치를 신청하고 회비도 냈다. 나도 이번 아웃리치에 참여하기로 했다. 새신자들에게 아웃리치를 권했는데 내가 안 간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나의 의지와 생각과 상관없이 아웃리치를 가게 됐다. 아웃리치를 떠나기 2달 전부터 매주 중보기도모임을 가졌다. 하나님께 아웃리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불어넣어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후회와 걱정이 가득했다. 중보기도뿐 아니라 일주일에도 두 번 씩 썸(SUM) 연습과 남아시아 1국 언어로 찬

양 연습을 했다. 썸 연습과 찬양연습은 새신자들이 주관했다. 그들은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연습에 적극적이었다.

나는 떠나기 전날까지도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마지못한 심정으로 아웃리치를 갔다. 아웃리치 현장에서 하나님은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하셨다. 아웃리치 가운데 보석 같은 놀라운 선물을 예비해 주셨다. 그 보석은 은혜였다.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남아시아 1국 아웃리치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셨다. 선교사님들을, 고아원의 아이들을, 현지 목사님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러 갔는데 오히려 우리가 위로받고 회복되는 시간이었다. 성령의 열매와 은혜가 차고 넘쳤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수고하고 애쓴 많은 지체들이 있다. 장로님께서는 현지인들에게 일일이 전도팸플렛을 채워주시고 기도해 주셨다. 다락방장님은 아웃리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하시며 매년 참가하고 계신다. 총무님께서는 말없이 섬세한 것까지 챙겨 주셨다. 아웃리치 팀장은 아웃리치 일정과 전반적인 사역을 책임졌다.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참석한 집사님도 계셨다. 섬김과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는 새신자들도 이번 아웃리치를 열심히 섬겨 주셨다. 밴드와 찬양팀과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웃리치팀은 서로 다른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행했다. 정말 귀하고 복된 아웃리치였다.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증인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고 싶다. 몸은 고달프고 피곤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 이번 아웃리치 기간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뻐요!”

신앙에세이



정한호 목사
(여호수아공동체)

온누리교회를 섬기며 가장 뜻 깊은 사역이 무엇인냐고 묻는다면 나는 지체 없이 ‘여름 아웃리치’라고 말할 것이다. 내가 섬기고 있는 대학청년부에 속한 많은 청년들은 여름 아웃리치를 기도하며 준비한다. 어떤 이들은 여름 아웃리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 년 동안 재정을 모으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여름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특별하고 귀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번 여름 아웃리치에서 캐나다 밴쿠버 원주민과 일본 구마모토 지진 피해지역 주민들을 섬겼다. 두 번의 아웃리치에서 잊을 수 없는 은혜가 있었다.

캐나다 밴쿠버는 대학청년부에서 처음으로 아웃리치를 계획한 지역이기도 했다. 캐나다 밴쿠버 아웃리치에서 오랜 기간 원주민들을 섬기고 계신 부부 선교사님을 만났다. 그 선교사님 부부가 섬기고 있는 원주민들은 과거 백인들의 탄압 때문에 불행한 세월을 보냈다. 지금도 그때의 상처가 남아 있는 원주민들을 위로하며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

밴쿠버 아웃리치에서 우리가 할 모든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쳤다. 선교지를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선교사님 부부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교사님 가족들의 발을 씻겨 드리고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한 선물을 드렸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놀라운 고백을 하셨다.

“제가 이런 축복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회개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오기 전 사역에 지쳐서 남편에게 사역을 그만하고 싶다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거든요.”

선교사님께서는 깊은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면서 깊이 회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고백하셨다. 그날 밤 우리는 선교사님의 고백을 들으며 함께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선교사님에게는 우리가 준비한 사역보다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큰 위로였고 메시지였던 것이다. 하나님은 아웃리치를 통해 참으로 많은 일을 행하시는데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스도인은 그 존재만으로도 커다란 메시지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향기를 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모든 영역마다 임하게 될 것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했다. 예수님의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메시지)이었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존재만으로도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인이 존재만으로도 메시지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다준다. 우리의 삶과 존재가 메시지라면 하루도 죄악과 짝할 수 없다. 단 하루도 함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뜨거웠던 여름을 보내며 이제 영적인 추수의 계절이 저 멀리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흔적이 새겨지고 있는지 돌아볼 때가 아닐까?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주 안에서 강건해지십시오

그래서 율법주의를 만들고, 우리가 율법 앞에서 도망가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나무에 달린 자가 됨으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갠으셨습니다. 율법을 성취하시면서 동시에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도록, 대적할 수 없도록, 모든 채무 증서를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 말은 “다 갠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갠 사건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세상의 권세자였던 사탄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가 배역하고 타락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능력을 제거하고, 권세를 빼앗고, 처음부터 지옥에 보내셔서 전혀 활동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허용하셨을까요? 사탄이 이 세상에서 왜 나쁜 일을 자행하도록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모든 활동이 얼마나 거짓되고 허황된 것인지를 온 우주에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허용 기간을 통해서 사탄을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지를 모든 피조물들에게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된 것을 믿음으로 체험하는 것이 십자가의 승리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고후 2:14).

주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짐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이루어진 그 승리의 개선 행렬에 우리가 뒤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 부활에 대한 승리가 음부까지 내려가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포로로 구원해 내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실 때 예수님만 다시 산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을 보면 무덤이 열렸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시지 않고, 그분의 부활과 동시에 이미 죽은 성도들이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는 부활의 역사가 장차 부활할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성도들까지도 포함하는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심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던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상대가 되지 않는 사탄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승리케 하심으로 사탄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승리를 함께 누

리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탄을 발로 밟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 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 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계 1:17b-18).

음부의 열쇠를 사탄이 가지고 있었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긴 것을 가로 채 자신들이 통치자가 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그 열쇠를 찾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이 바로 그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도록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안에 거하십시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사탄을 짓밟을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롬 16:20).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사탄을 발로 밟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무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권세로 사탄을 짓밟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권세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고, 떠나라고 소리치고, 거부할 때 짓밟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다짐하고 강건해질 때 사탄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모일 때 승리의 보고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처럼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박상학 목사의 말과 말씀 7



박상학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동네 골목길마다 그득 들어찬 아이들이 여기저기 몸을 숨긴다. 술래는 숨은 이들을 이 잡듯이 찾아 다닌다. ‘숨어라, 찾아라’ 영어로 ‘hide and seek’라고 하는

놀이 ‘숨바꼭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놀이일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놀이는 물속에서 술래잡기를 하던 놀이에서 유래했다. 숨바꼭질의 어원은 물속에서 숨을 바퀴 쉬는 행동인 ‘숨막질’, ‘숨바꿈질’에서 왔다. 즉, 자맥질을 하다가 숨을 바퀴 쉬는 행동을 일컫는 것이었다. 해엄을 치며 물속으로 숨는 물놀이가 지상 놀이로 발전해 오늘날 숨바꼭질이 된 것이다.

마리아나 제도의 조그만 섬 티니안. 1945년 8월 6일 티니안 기지를 출발한 기상관측 1호기가 일본 히로시마 상공을 선회하다 뒤따르던 B-29기(원폭 탑재)에게 “현재 상태 최상”이라고 알렸다. B-29기 조종사 폴 티베츠 중령은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딴 폭격기 에놀라 게이

(Enola Gay)를 몰다가 고도 9,600m 상공에서 포신형 우리늬 원자폭탄 리틀보이를 투하했다. 습하고 끈적거리는 히로시마 분지의 8월 6일 아침. 경보 사이렌에 이골이 난 히로시마 시민들은 시내 중심까지 날아든 미군 전투기를 보면서 출근을 위해 전차에 올라탔다. 아이들은 시냇가에서 물장구를 치고 있었다. 여름 방학이라 딱히 할 것도 없는 아이들은 더위도 피할 겸 아침햇바람부터 시냇가로 모여들었다. 저마다 한가로운 때를 보내던 8시 14분, 한 아이가 제안을 했다. “우리 누가 물속에서 가장 오래 있나 해볼래?” “이지, 니, 산(하나, 둘, 셋)” 한 여자아이가 물속에서 거의 2분 이상을 버티고 버티다가 물 밖으로 나온 순간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다. 같이 숨바꼭질을 하던 친구들이 물위에 둥둥 떠 있는 게 아닌가!

원폭 투하로부터 45초 후 히로시마 상공에 검은 버섯구름과 흰 연기 기둥이 1만7천m나 치솟았다. “대체 우리가 뭘 한거야?(What have we done?)” 조종사 폴 중령이 전투기 내부까지 들어다친 섬광을 손으로 가리며 외친 단말마(斷末摩)다. 불꽃은 도시 한복판에 아비규환 같은 불지옥 속에서 온몸이 타들어가고 녹아내리는 피부 때문에 두 팔을 하늘로 치켜든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검은 비(black

rain)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5개 강줄기가 세토내해로 모여 나가는 군사도시 히로시마는 그렇게 중심지부터 타들어갔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에 시작된 일이었다. 지금 히로시마 시내 한복판에 있는 ‘평화의 공원’에는 당시 참혹했던 참상들이 그대로 보존·전시되어 있다. 전시장 한구석에서 만난 당시 한 소년의 시계는 정확히 그날 8시 15분에 멈춰있다.

그 비참한 시각은 민족시인 심훈과 같은 이에게는 더덜덜 춤을 추는 날이었다.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두개골은 깨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꺼이 기뻐서 죽을 수 있다는 그날 말이다.

그날 1945년 8월 15일, 일왕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다. 1945년 8월 15일은 1910년 대한제국 멸망 이후 36년 동안 이루어졌던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Liberation Day)이다. 해방 3주년인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을 선포할 정도로 8월 15일은 우리에게 각별한 날이다. 8시 15분 투하된 원자폭탄이 8월 15일 광복을 가져왔다. 구원론의 결정판인 로마서는 8장 15절 말씀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롬 8:15).

1945년 8월 6일 8시 15분에 시작된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의 해방(解放)의 날이다. 억압과 두려움이라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는 해방은 다른 것에 예측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는 완전한 독립(獨立)된 신분으로의 복귀이다.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는 광복(光復)의 기쁨까지 맛보게 한다. 칙칙 같은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회복되는 광복의 기쁨은 분명 말로 다할 수 없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회복된 성도라면 기억해야 할 더 큰 기쁨이 있지 않은가. 하늘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놓으신 우리 아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로잡으실 것을 말이다.

“여호와께서 구해내신 사람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노래하며 시온으로 올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고 슬픔과 한숨이 달아날 것입니다”(사 51:11).

8시 15분, 8월 15일, 8장 15절

서빙고

0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부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증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9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3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루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4: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9:00 301호 / 네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화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증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증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증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증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개강: 9월 6일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홀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2층 꿈아이를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온누리가족 나눔동선(공원요역) 잔여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지)
동선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가): 80기
문의: 02-3215-3176

48기 온누리 젊은부부학교
일정: 10월 13일(토)~11월 3일(토)
대상: 결혼 12년차 이하
신청: 젊은부부학교 네이버카페, 아이스쿨
문의: 송홍섭 총무(010-3897-4555)

서빙고 한식당팀 조리원 모집
모집: 한식당 배식, 주방정리, 조리사 보조 등
자격: 경력무관(경력자 우대)
서류: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신양간증문 1부(선택)
접수: ohddong5@onnuri.org
문의: 오종한(02-3215-3101)

온누리 호스피스 기도모임
일시: 9월 5일~11월 28일 매주 수요일
시간: 오후 12시 30분~2시 30분
장소: 서빙고 비전홀
문의: 강경옥 총무(010-3412-7966)

CMN라파팀 안산M센터 아웃리치
일시: 9월 30일
내용: 전도지 전달, 의료, 이미용사역
모집: 의사, 치료의사, 간호사, 약사
문의: 심형섭(010-3227-9915)

양재

0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체찰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일랜드(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환우중보심방전도 요청을 받음

살롬기도회
대상: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월 19:30 양재 JDS홀
문의: 김정용 총무(010-5339-4522)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개강: 9월 6일
시간: 매주 목 오전 10:30
장소: 본관 B3층 JDS홀

양재 시니어 아카데미
일정: 9월 5일~12월 5일 매주 수요일
접수: 당일 현장(드림홀)
문의: 이길호 총무(010-6213-4988)

양재 커피숍 직원 모집
모집: 커피, 음료제조 및 매장관리
자격: 경력무관(동종업계 경력자 우대,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 우대)
서류: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신양간증문 1부(선택)
접수: ohddong5@onnuri.org
문의: 오종한(02-3215-3101)

부천

032. 322.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7:00/2부 오전 9:00/3부 오전 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 4:00(대청예배)/6부 오후 7:00(부흥예배)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분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9:00, 11:30 / 유치부-오전9:00, 11:30
유년부-오전9:00, 11:30 / 초등1부-오전9:00
초등2부-오전11:30 / 유초등부-오후2:00
중등부-오전11:30 / 고등부-오전9:0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예배 매주 수 오후 9:0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를

사랑부예배(장애인) 매주 오전 11:30 3층 꿈아이를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비전홀

중국어예배 매주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 주일예배
대학부 14:00 경찬홀, 청년부 15:00 사랑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4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초1~3학년), 11:30(초1~2학년) 사랑홀 / 초등부 9:00(초4~6학년), 11:30(초3~4학년) 경찬홀 / 소년부 11:30(초5~6학년) 믿음홀 / 중등부 9:00 비전홀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어린이&중고등영어) 11:30 비전홀

대전

0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젊은예배 오후 2시 30분 분당
대학부 오후 2시 30분 누리홀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5 분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09:00
꿈땅(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0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 / 4부(청년) 오후 4:00 분당
[다문화] 주일 11:00 / 4층 온유홀

주중예배
힌디어 토요일 19:00 5층 믿음홀 / 네팔어 토요일 19:00 5층 소망홀 / 새벽예배(월~토) 오전 5:20 3층 분당 /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 수요목양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기쁨홀
고등부 주일 오전 9:00 기쁨홀

평택

0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화요기도모임 화요일 오전 10:00 비전홀
수요오전여성예배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여성예배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본관2층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본관2층
파워웨이브 오전 11:30 파워웨이브교육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분당

외국어예배
몽골어 예배 11:30 평택M센터 Love Hall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헬터

인천

032.437.9686

※예배장소 및 시간에 대한 문의는 목회지원실(032-437-9686)로 연락바랍니다.

주일예배장소 9월

성인/차세대/사랑부예배
9/2, 9, 16: 송도 컨벤시아(송도동 6-1)
9/23, 30: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송도동 162-1)
[중고등부 예배] 프리스페이스 3층(송도동 8-10)
[대학청년부/국제예배] 제너션 7층(송도동 179-1)

주중예배
수요여성/수요저녁/새벽예배 프리스페이스 3층

주일예배
성인예배 9시/11시 25분/오후 2시
차세대예배 영아/유치/유년/초등/중등/사랑부 11:20
꿈땅1부/고등부 9:00 해브리키즈 오후 2시
대학청년예배 오후 2시
몽골어예배 오후 2시

강동

0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분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두란노홀
사랑부 오전 9:00 사랑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분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분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분당

양지

0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2부 예배 / 11:0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3부 두드림예배 / 14:00 / 지하1층 박모세를(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드림씨드(영아) / 11:00 / 2층 드림씨드홀(본당 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00 / 지하1층 무어홀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00 / 지하1층 위더스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00 / 2층 이벤티얼러를
꿈이 자라는 땅(초등) / 11:00 / 2층 스크랜터를
파워웨이브(중·고등) / 11:00 / 지하1층 박모세를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주제

성경구절이 담긴 자유 주제

모집기간

2018.9.17 ~ 2018.9.21

공모분야

KNOCK 영상 중 '퍼즈(PAUSE)' 시리즈를
모티브로 한 드라마, 미니다큐, 스케치 영상

형식

1분 내외의 영상
MP4, MOV 포맷 / 1GB 이내
(순수 제작물만 지원 가능하며
입상작은 KNOCK 페이스북 게재 예정)

시상

1등 / 200만원
2등 / 100만원
3등 / 50만원 (2명)

제출 및 문의

cgntv.knock@gmail.com
02-3275-9526, 9550

페이스북에서 '노크 KNOCK'를 검색하세요 (<https://www.facebook.com/cgntv.knock>)